

哲人 스피노사 그의 生涯와 哲學(一)

-誕生 三百年 記念을 마지며-

金斗憲

스피노사는 三百年 前 卽 一六二二年 十一月二十四日 和蘭 「암스텔담」 에 서 誕生하였다. 그의 家族은 葡萄牙의 政治的 宗教的 壓迫을 避難코져 當時 思想自由의 先驅인 和蘭으로 移住한 猶太族의 하나이었다.

스피노사란 이름은 西班牙小都市 pinosa에 緣한것인데 祖先以來로 그 式 이 一樣치안하였다. - Esplnoza; d' Spinoza; D' Spinoza; B. Despinoza; B. Spinoza: 如何間 그가 어릴 때엔 Barnch 라고 불렀으나, 그가 二十四, 五歲頃에 猶太教會에서 破門을 當한 後는 Barnch가튼 意味의 典名 Benedictus라고 自署하였다.

그의 幼時에 對하여서는 確實한 記錄이 업슴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그의 母親은 그가 六歲時에 世上을 떠났슴으로 家庭에서의 母性愛에 잠기지는 못 하였을것이다. 그의 母親은 當時 猶太敎와 基基敎와의 接觸이 複雜한 中에 잇서 依然 猶太主義를 信奉하였으나, 아들 Barnch에게 積極的으로 어떤 思想을 注入하지 안했다. 家産은 그다지 富裕하지 안했스나 家計에 困難이 업슬만한 程度의 商業을 經營하였고 그 餘暇에 猶太教會의 管理인의 한사람으 로도 잇섯다 한다.

Barnch가 學校에 들자 一般 猶太人의 常例로 至極敬虔한 敎育을 바덧섯 다. 그의게 처음 무서운 印象을 주었다는 嚴格한 敎師Rabbineno을 비롯하 야, Israeltmarteira의 敎訓을 바덧다. 여기서 그는 mose 五書Hebrew書 特 히Talmud mose 五書 以外의 猶太 律法書)를 學習하였다. 그리하여 벌서 十五歲부터 傳統的 信仰에 對하여 批判的 見識을 加졌섯다. 때마침 Inther派의 自由思想家Idn Pieterazon의 Ams · rdam來인를 當하여 그의 人格信仰 汎 神論的 思想에 적지 안흔 興味와 影響을 어덧섯다.

이미 青年期에 이르러서는 시, 市의 師에게 當時의 科學的 知識을 어덧 슌며, 또한 政治的 興味를 가져 各地에서 오는 同胞의 歐洲政局에 關한 消息

에 귀를 기울였었고, 벌써 國家의 體制에 關한 一見解를 가졌었다. 이미 學校를 나온 그는 獨力으로 猶太宗教哲學 以外에 哲學와 西歐古代 中古哲學을 研究하면서 家業에 就하였었다.

드디어 그의 思索的 發展은 猶太聖典의 神性□□의 本質奇□의 事實等等에 自己의 信仰을 託할수없었다. 이제 그의 精神生活에는 一大革命을 일으키여, 無信仰의 危機에 이르렀다. 마침내 이로 말미암아 猶太教會에서 破門을 당하고 兼하여 放逐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愛知求道の 精神을 잊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의 思索生活은 더욱 眞摯하여갔다. 그리하여 孤獨과 寂寞한 中에 新生活을 開拓하게 되었다. 그는 一六五五年 以來로 그의 親族과 同族과 거반 絶交에 이르렀다. 그 前年에는 父michiel과도 永別하였다. 그 遺産全部는 그의 姉妹에게 分配하고 오즉 □□하나만을 어땀다. 그리하여 그의 生活은 窮迫에 이르렀다. 이 때 □□□□은 그를 改□□□하려 □ □□□ □니면 一千「구르텐」의 年金(當時A市の 教授平均 年俸額)을 주겠다 하였다. 勿論 二十倍의 年金일지라도 그에 應할 理萬無하였다. 그의 忠實한 友人이요, 또 弟子인 Simon de Bries는 臨終에 自己財産全部를 贈與하겠다 하였스마, 이를 拒絶하고 自己 兄弟의 게 주라 하였다. 그는 生活資料를 얻기 爲하여 學術用의렌스를 갈기 始作하였다. 그런 中에 그는 研究와 著作에 힘썼다.

「세칼트」哲學의 幾何學的 敍述短 論集, 神學 情致論集은 生前에 悟性 改善論, 論理學은 死後에 出版되었다. 一切□典語로 그러나 生前 그의 著書는 公然한 署名을 避하였다. 그의 著作에 對하여 四方에서 論爭攻撃을 하였다. 世에 싸라서 그는 答辯抗議를 하였다. 이것은 오늘 「書簡集」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中에 스피노사의 名聲은 □이 노파졌다. 當時北歐에 有名한 Pfalz의 選舉侯Carl Ladwing는 그의 領地인 Hiederberg Myer 大學의 哲學教授로 招聘하였다. 그러나 그는 畢竟思想自由의 拘束을 免치못할것과, 教授로 因하여 哲學的 思索에 障碍될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拒絶하였다.

그는 벌써 二十年來로 肺를 아렸었다. 드디어 一六七七女 二月二十一日(日曜日)午後三時에 逝去하였다. 그의 臨終에는 友人が겨래잇슬뿐이었다. 生前에 만흔 迫害, 病苦, 貧窮을 參어오든 不遇孤獨의 우리 哲學者는 心情의 平穩한 中에 永眠하고 말었다.